

# 지역별 차등제… 제주 산업용 전기 ‘인하’ 전망

기후부 차등안 초안 공개… 당초 인상 우려서 반전  
제주도 “현재 예측 수준”… 이달 공청회서 윤곽

정부가 최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밑그림을 내놓은 가운데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됐던 제주 지역이 오히려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산업용 소매 전기요금 적용 지역은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값인 182원/kWh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남부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에는 최대 10원을 각각 인하한다.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에는 별도의 할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전국 4개 권역 가운데 남부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단위 단일요금으로 책정되지만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자급률, 송전거리,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을 반영해 권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제주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별도 권역으로 논의됐으며 낮은 전력 자급률과 송전거리,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요금 부담이 커질 지역으로 꼽혀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제주의 전력자급률이 낮아 요금 인상을 예상했으나 최근 나온 안을 보면 오히려 소폭 인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자급률 같은 불리한 조건보다 전력 소비 분산이라는 정책 목적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일요금인 도매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제주의 경우 이미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받고 있어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뉜 3분할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파는 구매 단계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도매 요금 차등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후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제도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대 또는 예측 수준이며 공청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발표 내용에 따라 제주의 권역과 요금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장·대변인·중앙협력본부장 재공모 마감  
총 20명 지원… 서류심사·면접 거쳐 적격자 선발

서귀포시장과 대변인, 중앙협력본부장 부장 등 3개 개방형직위에 대한 재공모가 마감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서귀포시장·대변인·중앙협력본부장 6명 등 총 20명이 지원했다.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도 유효하게 인정돼 최종 응모 인원은 19일 확정된다.

앞선 1차 공모에서 서귀포시장은 적격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대변인은 인사위원회의 ‘적격자 없음’ 결정으로, 중앙협력본부장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쳐 2배수에 미달하면서 각각 재공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응시원과 제출서류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직위별 입용후보자를 선정해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며,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적임자를 최종 임용하며 서귀포시장의 경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도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각 직위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 58% ‘미사용’ 제주시, 31일까지 실태조사… 사유 확인·맞춤형 안내

### 태극기 그리기 우수작 전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은 ‘2026년 태극기 그리기 대회’ 우수작으로 50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장하은 어린이(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가 차지했으며 도보훈청은 대상을 비롯한 우수작 50점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주항일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이번 대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대회로, 태극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정성껏 그린 작품을 접수해 수상작을 가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지역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들 가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8월 현재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 1만2940가구 가운데 미사용한 7505가구(58.0%)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가구의 사유를 확인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바우처 사용은 물론 에너지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여부, 미사용 사유, 에너지 이용실태 등이다.

시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바우처 사용방법과 사용 가능한 에너지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을 확인한다. 점검은 읍·면·동과 협조해 전화조사로 이뤄진다. 전화 확인이 어려운 가구는 필요에 따라 방문 등을 통해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사용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 원인을 분석하고, 안내 이후 실제 사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계속해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사용 사유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읍·면·동 관련 기관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트럼프 북미대화 의지… 정부 ‘기대’ 통일부 “북미대화 성사되면 한반도평화 기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화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으며 대화 단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국방부에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15일에는 자신의 SNS에 2019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최

근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북미 정상 간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질 바라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의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과의 외교 성과를 통해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지를 하락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은 9월 7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로 이후에는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

성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에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100m 이내에서 응답하면 된다. 이·통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뤄진다.

오소범기자

제주시 공고 제2026-2929호

제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한  
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기후변  
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19일  
제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내 농어촌도로  
· 사 업 규 모 : 15.9개노선(411.74km)  
· 사업시행자 : 제주시  
· 승 인 기 관 : 제주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구 분       | 공람기간 및 장소                                                               |
|-----------|-------------------------------------------------------------------------|
| 공람기간      | 2026. 08. 19 ~ 2026. 09. 18(20일간, 공휴일 제외)                               |
| 공람<br>장소  | 제주시청(건설과), 한림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br>구좌읍사무소, 조천읍사무소, 한경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br>추자면사무소 |
| 정보<br>통신망 | 제주시청 홈페이지,<br>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3. 주민설명회 개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제주시 | 2026. 08. 26 (수), 15시 | 제주테크노파크<br>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 |

4. 주민의견 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라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 출 처 : 공람장소(정보통신망 제외)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2026년 09월 26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설과(064-728-3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훈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사거리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실제시공이미지]

  
[제주의향사장이보유한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제주의향사장이보유한대]

  
[제주의향사장이보유한대]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